

WITH KRTA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방사협보 2022 vol.390 ————— 세 번째 이야기



9 772765 341001
ISSN 2765-3412




대한방사선사협회



Contents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02 Intro

난제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06 People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14 시·도회 소식

19 전문학회 소식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24 Scene of KRTA

의료기사법에 대한
의료기사단체의 입장 및 외국 사례 비교

28 Together

제19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권역별 분산 시행

30 Inspection

우즈베키스탄 국립암센터 시술 참관기

34 Hospital Diary

방역은 '함께'해야 하는 '각자'의 의무다

36 Guide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진단체계 구축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40 Sketch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천년 고찰(古刹)
부안 내소사 기행

46 Insight

미래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방사선사

50 Thinking

리더십 | 조직을 이끄는 힘

54 Pause

요리 명인과 함께하는 미식 여행, 와인의 모든 것

57 Cartoon

Zoom - in

58 Webtoon

숨 참으세요

WITH KRTA

방사협보 2022 vol.390 ————— 세 번째 이야기

발행일	2022년 7월 6일(통권 제390호)
발행인	조영기(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장	김기정(건국대학교병원)
편집위원	정성표(전북대학교병원) 권익수(충양보훈병원) 김규형(일산명지병원) 임우택(건국대학교병원) 박정호(여의도성모병원) 최유진(이대목동병원) 변재호(강동경희대병원) 김대호(한양대학교병원) 심지나(신촌세브란스병원) 송대영(충남대학교병원(세종)) 신현수(신촌세브란스병원) 차일권(효산의료재단 자생병원) 김진수(용인세브란스병원) 강보미(대한방사선사협회)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krt.or.kr
홈페이지	www.krt.or.kr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편집·디자인	디자인판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We are RT's

62 공지사항

제19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공고

65 Quiz Event

독자퀴즈

WITH KRTA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WITH KRTA는 협회 홈페이지(www.krt.or.kr)와 웹진(webzine.krt.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KRTA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난제(難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누구나 어렸을 적 어려운 수학 문제와 싸워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문제를 보고 무척이나 당황하여 머리만 긁적이지만,
이내 실마리를 잡으면 이 공식 저 공식을 대입해 가며 여러 방법을 찾다가
마침내 답을 찾아 희열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땐 세상에서 가장 큰 벽에 부딪힌 것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2000년이 다가오는 21세기를 한껏 기대하던 수학자들이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가 없을까
고민하다 수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7개를 뽑기로 했다.
내비어-스톡스 방정식, 리만가설, 버츠와 스위너톤-다이어 추측,
양-밀스 질량 간극 가설, 호지 추측, P-NP 문제, 그리고 푸앵카레 추측이다.
이름하여 세계 7대 난제로 뽑히는 밀레니엄 문제이다.
왠지 외워두면 유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거 같은 단어들이다.
이 가운데 풀린 문제는 딱 하나, 바로 푸앵카레 추측이다.

무슨 식품 이름 같기도 하지만 우습게 봐서는 곤란하다.
추측이 제기된 1904년 이후 증명하기까지 1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이 걸렸고,
저명한 수학자들이 증명한 내용을 검증하는 데만 꼬박 3년이 소요됐다.

세상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고 또 고민한다.

우리에게도 무면허 퇴치, 초음파 업무영역 등과 같은 난제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 또한 풀지 못할 난제가 아니란 것을….

편집장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 06 People**
이필수 대한의사협회회장

- 14 시·도회 소식**
서울특별시회
인천광역시회
경기도회
대구광역시회

- 19 전문학회 소식**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발로 뛰는 협회

4. 2 2022년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경상남도회)
사업부 2022년 제1차 보험TFT 회의
4. 3 메디코어스 이널라이저에어 골밀도 장비 충남 아산시 제일조은내과의원 선량측정
4. 4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개강
4. 5 총무부·법제부 업무보고
4. 7 교육부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비대면 VR교육 사업 안내 회의
4. 8 메디코어스 이널라이저에어 골밀도 장비 서울 동작구 정동병원 선량측정
사업부 메디코어스 이널라이저에어 골밀도 장비 방사선노출 검사 및

검사결과 회신 요청 공문 발송(수신: 메디코어스 대표)

4. 9 연수원 심장초음파 개강

4. 12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4. 13 심장초음파 업무관련 대책회의

4. 15 제2차 상임이사회의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

4. 16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정도관리 심포지엄

4. 19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 면담
서울·경기 상급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실장 간담회

4. 20 메디코어스 이널라이저에어 골밀도 장비 경북 상주시 박신경외과의원 선량측정
4. 22 법무법인 자문변호사 면담
4. 23 2022년 전문연수회
4. 24 제10차 윤리위원회의
4. 25 홈페이지 개편 실무자 회의
4. 26 심장초음파 소송 관련 법제부 업무
4. 27 기록보존위원회 사이버박물관 구축 소위원회의
4. 29 재단법인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설립 준비 간담회
4. 30 제223차 정기이사회의
5. 3 메디코어스 공문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발신: 법무법인 태림)
5. 4 시도회 간담회 및 방사선사 연수원(인천분원) 수료식

5. 6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접수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 발송
(수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은평구보건소, 홍석호내과의원, 서울특별시회)
5. 7 연수원 심장초음파 종강
5. 8 제11차 윤리위원회의
5. 9 방사협보 제389호 발간
5. 10 심장초음파 소송 관련 사건위임 계약(형사, 민사, 행정 등)
5. 12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
2022년 정책사업제안(연구과제) 설명회
5. 13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고사장 사전답사(영남권)
5. 14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2022년 보수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안) 마련 회의

- 정관, 시도회 설치규칙, 대의원 운영규칙 등 논의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협의
5. 15 춘해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심장초음파 종강
5. 16 제2차 방사협보편집위원회 회의
미디어혁신부 제1차 CI사업 소위원회 회의
5. 17 제1차 전문방사선사 시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대한군진방사선학회 임원 면담
5. 18 「2022년 방사선사 적정임금 가이드」 마련을 위한 설문 참여 알림톡 발송
5. 20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긴급회의 전임회장, 고문 간담회
5. 21 제19차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축사
5. 22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 참여
5. 23 상급 종합병원 핵의학과 실장 간담회
안전관리부 업무보고
미디어혁신부 사업보고
5. 24 법제사법위원회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기록보존위원회 사이버박물관 구축
소위원회 회의
5. 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면담
5. 26 전문학회장 간담회
5. 27 제3차 회장단회의
국회 정무조정비서관 면담
제3차 상임이사회의
5. 28 제1차 학술위원회의
5. 29 제12차 윤리위원회의
5. 31 해방사 업무 협약식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듣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Q1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끄는 대한의사협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방사선사 회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5만여 명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해 5월 14만 의사회원의 대표인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해 이제 막 임기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장 취임 당시 강조했던 의협 회원 및 보건의료인 권리 보호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며 약 1년

2개월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한 전문성 높은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지속 수행하며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위상과 품격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신종 감염병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주어진 임기 동안 감염병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도 보건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과 제안을 전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보건의료직역의 공통 목표이기도 합니다.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께서도 대한

6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재정비와 같은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99

의사협회와 저의 행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기회로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주로 폐렴이 동반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수없는 X-ray와 MRI, CT 등의 검사가 필요한데, 밤낮 없이 영상 검사로 진단에 큰 기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Q2 최근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가 연합체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의료체계는 의사와 의료기사, 간호사가 법령에 기반한 업무 분담을 중심으로 하나의 팀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단독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팀플레이에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보건의료 면허체계가 혼들릴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간호사의 단독법 제정은 팀플레이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의료는 보건의료 인력이 원팀(One-Team) 체제로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활동할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하나의 팀워크에 균열을 가져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해야 하는 것과 명백히 배치되고 역행하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등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주요 사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하거나,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만을 위해 싸워온 것에는 모든 직역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제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단체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인 만큼, 범 의료계와 여·야간의 충분한 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 실현을 위한 법안 제정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맞서 다 함께 헌신해온 나머지 보건의료직역의 노력을 펼쳐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임이 명백합니다. 간호사 직역만이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이 아님을 간호사단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니라 모두의 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3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X-ray,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을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진료 보조 업무를 분업화·전문화하여 분야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보건의료 면허체계가 혼들리는 현 상황에 대한 협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현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은 의료법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그리고 간호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며 현행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 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방사선사의 업무 중 일부를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도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 중인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업무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는 각 직역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역들은 완성된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 체계 시범사업’도 문제지만, 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제11조 및 제12조의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근거로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혼란한 의료현장에서 파생된 불완전한 의료 서비스는 환자들에게 응급한 상황에서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 체계 시범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보건의료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도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 보조인력 관리와 운영 체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

대책위원회와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들이 힘을 모은 결과,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의 문턱에서 저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간호법이 재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 의료계의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사와 방사선사라는 각기 다른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이지만, 결국 의료현장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의 경우 수련제도를 통해 최종 책임자로서의 전문성을 기릅니다. 방사선사와 같은 의료기사는 직역 특화된 교육과 수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이 발휘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총력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간호법 저지에 대한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전문적 역할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재정비와 같은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의료직역 전체가 아니라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입니다.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에서 처우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힘을 합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간호법을 저지해 보건의료체계 혼란과 붕괴를 막고 그 영향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그 과정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Q5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보건 의료인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숨은 노력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검사 시 레벨 D의 방호복과 방사선 차폐복을 겪쳐 입고, 500kg이 넘는 이동형 진단 장비로 일일이 환자와 대면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들의 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환자와 대면 검사를 시행하면서 과로, 피폭, 감염의 3중 고를 묵묵히 견디는 방사선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흉부방사선 검사가 매우 중요한 진단 수단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의료인력들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들에 비해 의료기사의 숨은 노력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의사인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검사 시에 D레벨 방호복을 갖춰 입고 방사선 피폭을 막는 차폐복을 덧입은 상태에서 500kg에 육박하는 이동식 장치를 끌고 와 대면검사를 해야 합니다. 차폐 시설이 없는 선별진료소에서 차폐복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환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감염과 피폭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많은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과 의료인력들의 소진, 이탈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확대가 담보되어 수가 정상화를 통해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을 통해 의료자원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사의 권익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게 되며 근로여건 또한 개선되길 기원합니다.

Q6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5만의 방사선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를 교란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 원팀(One-Team)을 저해하는 의료계 악법 중 악법입니다.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문제는 간호사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린 방사선사의 땀방울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함께 밀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처우개선을 누리고 수고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6일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기존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여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간호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총력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간호법 저지에 대한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들과 전국의 5만 방사선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단체들의 직역 상호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❾

NEWS

2022년 방사선사 적정임금 마련 위한 연구 착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코로나19로 높아진 업무 위상에 따른 임금 상승 필요성 대두
중소 병·의원 소속 방사선사의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거 마련**

보건의료면허체계 붕괴시키는 '간호악법' 반대!!

**'업무영역 침탈하는 간호악법 제정... 당장 중단하라'
'간협의 사익추구를 대변하는 국회와 간협은 반성하라'**

지난 5월 23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는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끝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전체 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강행한 것에 분개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면 업무침탈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은 개의치 않은 채, 대한간호협회의 사익만을 대변하기에 급급하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복지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초음파, X-ray,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침탈함은 물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우리 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전문성을 갖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직역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며 교육하고 있다"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진료 지원 업무를 분업화·전문화하여 분야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는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에도 국회는 대한간호협회의 사익만을 대변하며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째,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모든 직역이 각자만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을 불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셋째,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붕괴한다. 넷째,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간호사 직역 특혜를 위한 간호악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 되어온 면허제도와 전문직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며 "각 직역 간 협조와 조화 대신 균열과 불화를 조장해 결과적으로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게 될 것이기에 그 파국적 결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3개 단체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악법 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과 더불어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노무법인 MK컨설팅과 협력 하에 '2022년 방사선사 적정 임금 가이드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2017년도 '방사선사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지 5년이 지난 지금, 협회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도 있었다. 또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으나, 2022년인 현재 9,160원으로, 2,690원 (41.6%) 가량 올랐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방사선사의 업무 영향력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제시한 최소 연봉기준 2,904만원은 현실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연구의 최대 목적은 방사선사의 취업 진로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이며, 방사선사의 적정임금 수준을 검토함으로써 면허자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다. 또한 중소 병·의원 소속 방사선

사의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의 책정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지난 2017년도 '방사선사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당시 많은 회원들과 의료기관의 협조 아래 방사선사의 근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 소중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만큼, 이번 2022년에도 본 연구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방사선사 회원 스스로의 권익을 높여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방사선사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회원 개개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직업 만족도를 높여 국민보건향상에 진취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속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높이고, 회원의 일자리와 기본소득을 지키고자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위한 협회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활성화

신고 내용 접수에 따른 즉각 조치 시행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인 '무면허 의료행위 퇴치 운동'을 위하여 권리보호위원회 및 복지·권익부와 사업·보험부, 미디어 혁신부 협업으로 다양한 세부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회원의 근무지 정보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정보를 수집하여 방사선사가 없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무면허 검사나 의사가 검사했다는 부정청구를 집중 감시함으로써 방사선사 청구 실명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퇴치와 방지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와 협회 회원 정보, 보건소 정보 공개요청 자료를 대조해 방사선사가 근무하지 않는 의원 리스트를 조사했다. 그중 인천시 서구에 소재하는 3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협회는 방사선사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 내 '무면허자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내용 중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토대로 해당 병(의)원, 관할 보건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해당 시·도회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 발송을 발송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와 함께 뉴스레터, 인터넷카페, 홍보물, 안내공문, 공지 등에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구인활동을 철저히 근절하는데 협조하겠다는 화신을 받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정의),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②항 2호에 따라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면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 2, 제9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안정된 고용 창출을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퇴치 활동에 지속적으로 정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부설기관의 상시 협조 요청과 함께 미디어혁신부와 협업으로 방사선보, 뉴스레터 등 다양한 미디어 홍보 활동을 통해 협회 홈페이지의 무면허자 신고 게시판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서울특별시회

NEWS

서울특별시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서울자전거 따릉이' 지원



녹색성장 선도 도시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울특별시회 정회원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화창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야외 나들이가 활발해지면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건강한 나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오늘부터 자전거 어때요?

서울특별시회(회장 직무대행 이래곤)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노호텔앤리조트(구.대명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였다. 서울특별시회 정회원이라면 국내 최대 규모 소노호텔 앤리조트 16개의 직영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특별함과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 2022년도 1차 진행된 사업은 서울특별시회에 서 지정한 일자에 회원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스템이었고, 하반기에는 회원 본인이 원하는 일자로 게시판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사업부 조선일(경희대학교병원) 이사는 "서울특별시회 정회원님들의 복지 및 사기 충전을 위해 쉼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린다."고 전하였다.

#맑고 투명한 옥빛 물결, 파도의 리듬에 맞춰 한걸음 한걸음씩 속도를 줄이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회 전임회장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직무대행 이래곤)는 지난 5월 26일(목) 18:30 전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13대(1989.02~1991.01) 정순규 회장 외 19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2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였던 간담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드디어 진행되었다. 개회 선언 후 인사말, 참석자 소개, 2022년도 상반기 회무보고 및 일정 공지, 기타사항 논의, 석식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3대 정순규 회장은 서울특별시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임원진에게 감사함을 전

소노호텔앤리조트 '쉼(#잠시쉬어가기)' 사업

서울특별시회(회장 직무대행 이래곤)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노호텔앤리조트(구.대명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였다. 서울특별시회 정회원이라면 국내 최대 규모 소노호텔 앤리조트 16개의 직영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특별함과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 2022년도 1차 진행된 사업은 서울특별시회에 서 지정한 일자에 회원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스템이었고, 하반기에는 회원 본인이 원하는 일자로 게시판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사업부 조선일(경희대학교병원) 이사는 "서울특별시회 정회원님들의 복지 및 사기 충전을 위해 쉼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린다."고 전하였다.

#맑고 투명한 옥빛 물결, 파도의 리듬에 맞춰 한걸음 한걸음씩 속도를 줄이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회

NEWS

2022년 상반기 부서장 간담회 개최

5월 3일(화) 19시 인천시회 회관에서 2년만에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로 멈춰졌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자리에 20여 명의 부서장님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있었던 시회 사업 내용과 앞으로 있을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토의와 상복부 투시검사 시 사용되고 있는 조영제에 대한 현안 문제점을 공유하였고 기타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심장초음파 심화과정 수료식 열어

심장초음파 심화과정 수료식이 5월 4일(수) 인천시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해 실시한 심장초음파 연수과정을 수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12주간 (24시간) 실습 위주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명화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로 수료한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과 연수원 노지숙 원장님과 임원들이 참석해 수료한 회원에 대한 축하와 연수원 인천분원의 운영에 대한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천 의료기사연합 보수교육 및 제21회 미추홀학술대회 성료

5월 14일(토)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의료기사연합회에 소속된 8개 단체의 보수교육 및 제21회 미추홀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공동 학술대회는 8개 단체가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 속에 인천지역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자리로 각 단체의 중앙회 회장단과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는 등 의료기사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행사였다. 이날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그 역할의 중심 IRTA'라는 슬로건으로 제21회 미추홀학술대회를 진행했는데, 400여 명의 회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인천시회 소속 회원의 연구논문과 재학생 논문을 포함하여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온라인으로 일본 후쿠오카현 방사선기사회와 국제 학술포럼 및 다양한 분야의 초청 특강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의료기기 및 기자재 전시회도 진행되어 회원들 간의 상호 지식 함양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학술대회 회원논문분야 대상은 김민종(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박민지(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우수상은 곽민지(인하대학교

병원), 장려상 강성현(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구연상은 김태훈(인하대학교병원), 이강산(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회원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과 함께 인천시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장 표창 이은모(인하대병원), ▲인천시의장 표창 윤희식(나래병원),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유정식(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한방사선사협회 표창 박현민(검단탑병원), ▲인천시협회장 표창 김대근(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각각 수상했다.



경기도회

NEWS

경기도회, 2022 온라인 국제종합학술대회 성황리에 마쳐



회원 논문 발표 대상 조정훈 회원(아주대학교 의료원)

2022년 4월 24일(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대학교 자유관 U-First홀에서 오프라인과 Zoom Webinar 동시에 “Pandemic에서 일상으로! 방사선사와 함께 새로운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약 700여 명의 회원이 접수한 가운데 경기도회 온라인 국제종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COVID-19로 인하여 2021년에 연이어 2번째로 진행된 온라인 국제종합학술대회로 재학생 논문 10편, 중국 회원 논문 2편, 일반 회원 논문 12편이 발표됐으며 경기도 관광공사가 후원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인사로는 경기도회 나성규, 김광순 고문과 정상돈 경기도회 의장을 비롯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과 각 시도회 회장 및 임원진의 참석으로 자리를 빛내주었다.

경기도회 차종호 회장은 경기도회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고문님, 조영기 협회장님, 각 시도회장님, 중국 방사선사 협회장이자 사천성 회장인 Li Zhenlin회장님과 논문을 발표해 주신 사천성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학술대회에 많은 논문을 투고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재학생 논문 발표에 참여해 준 도내 5개 대학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거점의료원, 병·의원,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에 여념이 없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3월 경기도회에서 ‘논문 작성법’ 무료교육을 시작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행사를 시작했

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경기도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경기도회 회원의 권익 신장과 더불어 경기도회의 발전을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학술대회 진행에 앞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장 표창 ▲김대건(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주용(이천 바른병원), ▲서덕조(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2년 온라인 국제종합학술대회 솔로건 공모 ▲김대건(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국무총리 표창 ▲신창수(오산시 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기협(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도지사 표창 ▲신진희(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이규봉(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안예지(병점 메디컬), ▲지명호(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도회의장 표창 ▲김유경(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백병우(아주대학교 의료원), ▲이준희(평택 국모닝병원), ▲정우준(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추승훈(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수원시장 표창 ▲윤기보(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이진호(아주대학교 의료원)

오전에는 재학생 논문 10편을 발표했는데 ▲신구대학교 김나영 [COVID-19 장기화 적응에 따른 비대면 환경 변화 및 인식 조사(방사선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안산대학교 구세림[토모테라피 방사선치료에서 쌀 블루스의 유용성 평가] ▲동남보건대학교 이도영[Decision Matrix기반 Hybrid PET-MRI의 폐암 진단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김소은[Primus L을 이용한 피사체 두께에 따른 정량적인 영상화질평가] ▲신한대학교 김범수[응급실 침대 위 흉부 전후 방향 검사를 위한 상의 고정 장치 개발] 이상 5명의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오후에 진행된 일반 회원 논문 12편 중 ▲아주대학교 의료원 강동구[자가 수면 유도를 통한 신생아 및 미숙아의 뇌 MRI검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고창수[대동맥 혈관 CT에서 Deep Learning Image Reconstruction 기법과 Adaptive Statistical Iterative Reconstruction-V 기법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비교 분석 및 유용성 연구] ▲아주대학교 의료원 구교민[하지동맥 인터벤션 시술 전 비 조영증강 CT를 활용한 석회화 조기진단의 임상적 가치] ▲아주대학교 의료원 김제중[3DCT를 이용한 최적의 Grashey 각도 연구: Trauma Shoulder 환자를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의료원 오세인[Pierce 기법을 이용한 하지 혈관재개통]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훈정[초음파 조직 생검 시 실내의 포름알데히드(HCHO) 농도 변화 관찰] ▲아주대학교 의료원 장윤진[복부CT 검사 시 유선조직 선량 감소를 위한 Breast-Shield의 유용성 평가] 회원이 구연상을 ▲평택 국모닝 병원 민문영[Natural Position Hand 고정기구를 통한 Flex coil 효율성 평가] 회원이 특별상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대건[환자를 위한 방사선치료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분석] ▲아주대학교 의료원 최지웅[가시위근출구촬영법(Supraspinatus Outlet View)의 바로누운자세 검사 시 X-ray 입사 각도에 따른 영상의 효용성 비교] 회원이 우수상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서충범[초당 좌심실 구혈률이 조영 증강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회원이 최우수상을 ▲아주대학교 의료원 조정훈[요추 측만 환자의 선 자세 측 방향 X선 촬영 시 만곡 각도에 대한 연구] 회원이 영예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논문 시상식 이후 경품 증정 이벤트인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으며, 경기도회 차종호 회장은 “주말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구성으로 학술대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더불어 소통과 화합이 있는 열린 경기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막을 내렸다.

제2차 정기이사회 & 워크숍 개최

2022년 5월 14일(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제부도 바다사랑 펜션에서 2022년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경기도회 차종호 회장은 경기도회 제24대 집행부에 임하면서 COVID-19로 인하여 상황이 여의치 못해 임원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워크숍이라 상당히 뜻깊고, 남은 임기까지 경기도회 회원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자고 전했다.

주요 안건으로 2022년 경기도회 회무 일정 중 6월에 예정된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 봉사활동에 관련된 사항, 경기도의료기사단체 관련 업무, 경기도회 봉사활동 건, 외부 표창 추천 건, 경기도회 회원과 함께하는 행사, 경기도회 학술대회 보고 건, 2022년 임시 도의원 총회 건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했다.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더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회 홈페이지 및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

대구광역시회 단합대회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권덕문)는 2022년 5월 28일~29일 양일간 대구광역시회 회원이 참여하는 단합대회를 MG엔젤 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삼우 볼링프라자에서 개최하였다. 5월 28일 개최된 2022년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는 5월 2일~22일까지 총 60명의 회원이 예선전을 거쳐 예선 성적 1위~20위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경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으며 6언더파의 성적을 기록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정모 회원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5월 29일 개최된 2022년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배 볼링 대회는 총 33명의 회원과 회원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3게임 합계 649점의 성적을 기록하여 수준급 기량을 보여준 경북대학교병원 유남원 회원이 우승하였다. 이번 단합대회를 기획한 대구광역시회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여간 단절된 회원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권덕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원해진 회원들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회원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ITH KRTA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022년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방사선치료학회(회장 이제희)는 지난 5월 21일(토)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 연구홀에서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COVID-19로 완전 일상의 정상화는 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제희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그 시발점이 2022년으로, 한층 더 전문성이 강화된 학술대회,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학회를 지향하여 대한방사선치료학회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하이브리드 학술대회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밝혀줄 등불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개회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의 축사로 하이브리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온&오프라인으로 510여 명의 회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 서울대학교병원 장지현 교수의 <유방암의 방사선치료와 임상연구> 특강이 진행되었다. 데이터의 실제 활용 및 새로운 연구설계로 진단 및 치료의 발전으로 암 환자들의 치료성적은 최근 크게 향상되었으며, 종양제어 및 생존률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부작용 고려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다.

삼성서울병원 유규상 교수의 <Proton Beam Therapy for Hepatic, Pancreatic, and Biliary Cancers> 특강에서는 간세포암의 양성자 치료는 간암의 국소제어율이 높으며, 면역치료와 병용으로 치료 잠재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췌장암 양성자 치료에서 최근 치료성적과 낮은 위장관 독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임상연구들이 필요하고, 담도암의 양성자 치료는 선량 증대로 치료성적을 향상시켜 양성자 치료의 도입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백금문 수석부회장의 <The latest trend in 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IGRT)> 특강을 통해 IGRT에 대한提醒와 최신 MRIGRT소개 및 방사선치료의 동향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회원 학술발표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임준택 회원의 [양측 유방암 방사선치료 시 나선형 토모테라피와 Halcyon VMAT 치료계획의 유용성 평가] 서울보라매병원 우현 회원의 [IMRT(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전달 기법과 FFF(Flattening Filter Free) 범을 이용한 요철 부위 피부 선량 증가법에 대한 고찰] 삼성서울병원 정희주 회원의 [이중표적 척추 전이암의 체부정위방사선치료 시 O-Ring Halcyon Linac의 치료 유용성 평가] 총 3개의 논문 발표됐으며, 논문 발표 구연상은 임준택(삼성서울병원) 회원이 수상하였다. 발표 후에 열띤 질문들이 이어져 회원들의 열정과 관심이 어느 대회 때 보다 빛나는 학술대회의 장이 되었다.

이제희 회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어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임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치료학회 회원들에게 이번 춘계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 대 대해 무한한 감사 를 표명하였다. 또한 제18대 대한방사선치료학회 회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연도이지만 치료학회가 암 치료 발전에 한발 더 나아가 더욱 빛이 나고 우수한 전문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폐회를 선언하였 다. 아울러 각 병원 일선에 계신 치료학회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이다.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NEWS

제32차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세영)는 지난 5월 14일 2022년 춘계학

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상황
에 맞게 라이브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되었다.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의 임원진 및 내빈만을 초대한 가운데
손 위생 및 마스크 착용, 대인 간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감염병 예

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500여 명이 동시에
접속한 가운데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1부는 교육 이사의 진행으

로 'Newest MRI'라는 토픽을 가지고 장비 3사의 최신 장비 소개와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최신 기술들에 대한 강좌가 있었고, 2부에서는 학

술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회원들의 논문 연재 발표와 Q & A 순서가 진행
되었다. 총 10편의 논문 발표와 2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는데 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술상 2편**박진형** (건국대학교병원)

- 화장품이 자기공명영상에 미치는 영향: 눈 화장품 중심으로

연구진 (삼성서울병원)

- 3.0 T에서 유방조직 확장기에 대한 MR 안전성 평가

대한실드학술상**최준희** (서울대학교병원)

-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에서 SENSE 인자 변화에 따른 진단적 유용성 연구

우수구연상**권순용** (건국대학교병원)

- 고속 스핀 에코 기법을 이용한 MRI 검사 시 영상 변수가 전자파 흡수율과 온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전은준 (전남대학교병원)

- 복부 MRI 검사 시 혈류속도에 따른 Bolus 위치 변화를 통한 최적의 artery phase 획득에 관한 연구

이우석 (서울아산병원)

- 3D 프린터 제작물질에 따른 MR image에서의 distortion 평가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회원 가운데 MR 분야 논문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회원들에 대한 기념패 수여식이 있었는데 일하는 중에도 자기 발전을 위해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회원들에 대한 노고를 축하해주고 기념하는 장면이 뜻깊은 자리였다. 다음으로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주신 10대 김세영 학회장과 새롭게 11대 학회장으로 당선된 김준규 회장의 학회기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차기 김준규 학회장은 힘차게 학회기를 훈들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11대 집행부의 출발을 알렸고, 10대 김세영 학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온라인 학회가 되길 염원하면서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만나기를 다짐했고, 차기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면서 학술대회의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제11대 학회장 선출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세영)는 지난 3월 5일 2022년 제1차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링크업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여러가지 안건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있었고, 3년 임기가 마감된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학회장 및 감사 선출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지난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고 학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표 즉시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를 확정 발표하고 본회 홈페이지에 선거 결과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제11대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학회장으로 강북삼성병원 김준규 후보가 당선되었고, 감사에는 분당차병원 서동주 후보와 강원대학교병원 차재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1대 학회장으로 당선된 김준규 후보는 우리 학회는 명실상부한 등재 학술지를 보유한 학술단체로써 등재지 유지 및 회원들의 학술역량 증대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재 개발위원회와 지식관리부 신설, 대학 연구소 등과의 학술교류 및 연구 협력을 통해서 미래학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및 준비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회 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와 전문 연수강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전임 10대 세브란스병원 김세영 학회장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19차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회장 김상현)는 지난 2022년 5월 21일(토)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 소극장에서 “제19차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완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의 조정안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과 현장 참석 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는 김민철 국회의원 및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이창래 박사가 강연을 맡아 수준 높은 강의로 학술대회를 빛내주었다. 학술대회는 600여 명이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회원 연재발표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의 논문 총 17편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분야별로는 10편의 일반검사 및 영상평가 분야, 2편의 투시 분야, 3편의 3D프린팅 분야, 1편의 통계 분야, 1편의 Case review로, 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어 회원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 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1편

박정수(분당서울대병원)

- 제왕절개 직전산모의 흉부방사선 촬영 시 태아보호를 위한 최적의 차폐 방법 제안

우수상 3편

박명주(삼성서울병원)

- S-align 기능을 이용한 흉부 전·후 방향 검사 시 적절한 X선관 각도에 관한 연구

최지웅(아주대학교 병원)

- 가시위근출구촬영법(Supraspinatus Outlet View)의 바로누운자세 검사 시 X-ray 입사각도에 따른 영상의 효용성 비교

김진수(서울아산병원)

- Fluoroscopy 에서 다양한 Measuring Field 적용에 따른 영상 화질 및 선량평가를 위한 인체팬텀연구장려상 2편

김상민(고대안암병원)

- 기관 내 삽관 후 흉부 검사 시 Tube 각도와 검사조건 변화에 따른 E-Tube의 영상 왜곡과 화질의 유용성 평가

정연진(삼성서울병원)

- 디지털 방사선 환경에서 두부 방사선검사의 진단참고수준에 대한 고찰

전문학회장상 1편

김도성(강동성심병원)

- 이동형 압출기를 이용하여 제작한 필라멘트의 차폐 유효성 평가

회원들의 연재발표 후에 경품추첨을 진행하였다. 신속, 공정한 추첨을 위해 춘계학술대회 접수한 회원들의 회원 번호를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을 진행하였으며, 경품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또한,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는 논문심사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더 공정성 있는 심사를 위해 평가 항목 및 수상 기준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제7대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회장단 및 임원진들은 성공적인 춘계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연수강좌 및 보수교육을 통한 회원들과의 교류를 최우선으로 하여, 학술과 교육을 선도하는 학회로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연구지원을 위한 정책 및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WITH KRTA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Scene of KRTA

의료기사법에 대한
의료기사단체의 입장 및 외국 사례 비교

Together

제19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권역별 분산 시행

Inspection

우즈베키스탄 국립암센터 시술 참관기

Hospital Diary

방역은 ‘함께’해야 하는 ‘각자’의 의무다

Guide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진단체계 구축

의료기사법에 대한 의료기사단체의 입장 및 외국 사례 비교

글 김재석(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과 전문화 제도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고, 더불어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이라는 문구는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기사단체들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를 독자적 영역으로 분류해 의료행위영역 내에서 독자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Since 1963

여전히 ‘지도’ 아래 있는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은 1963년 7월 31일 ‘의료보조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법률 1308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보조원’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105호를 1964년 12월 17일에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1965년 4월 22일에 국립보건원에서 관장하는 최초의 의료기사 시험을 보게 되었다. 그 후 1973년 9월 4일 대통령령 6864호 ‘의료보조원법’이 폐지되고 ‘의료기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의료기사는 단순히 의료보조업무를 담당하는자가 아니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 치료 등을 하는 전문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3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령 427호

바야흐로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나를 선진국 지위권을 획득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60여 년 동안의 의료법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개정이 되었지만 의료기사와 의료인의 차별과 개인적인 독립권은 사실상 개정되지 않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치과기공사와 안경사의 개설등록과 같은 법의 개정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수적인 의사와 간호사 위주의 법체계가 유지되어 오면서 각 단체들이 권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각 단체의 이익이 상충되어 의료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8개 단체의 입장과 외국의 교육시스템과 현재 의료인의 지시와 지도 문구에 대한 내용을 선진국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사례 및 판례에 대한 조사 시작하였다.

에 의하여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의료기사법은 1995년에 소폭 개정된 것이다. 법안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적 절차와 평등성 및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과는 상이했으며,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는 진단 및 치료 형태만 존재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G7에 초대되는 등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래 사회에 예견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체계를 기준의 ‘질환의 치료’ 영역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이후 방역체계 확립, 예방의료, 원격의료, 중상의 완화, 재활 및 요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60년간 모든 의료서비스가 의사의 지배하에 ‘지도’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생각된다.

우나라는 의료인 5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와 업무를 결합해 규정하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 8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면허와 업무를 결합해 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8개의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사의 종별 법률 규정은 다음 표와 같이 의료기사 등 법률 제2조와 의료기사 등 시행령 제2조로 규정한다. 의료기사 중에서도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는 일반 환자를 담당하고,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는 치과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 고용되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안경사와 치과기공사는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사례

외국은 어떨까?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사 등이 제각각 종별로 단독법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의료인은 신분에 관한 법률과 사업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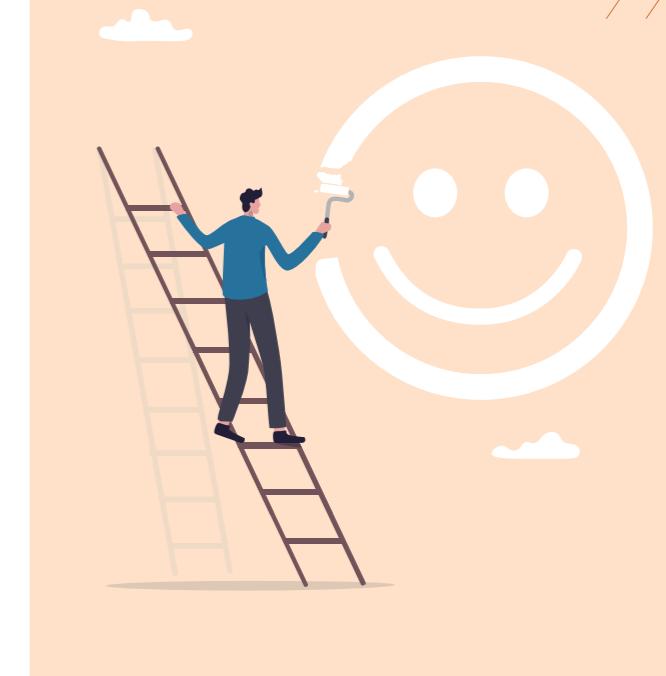
일본은 2002년에 ‘임상 검사 기사 및 위생 검사 기사’에 대한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검토위원회에서 해당 문구를 검토한 결과 임상 검사 및 임상 시험 기사의 스스로 직책을 지지하는 의미에서도 ‘의사가 지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실제 임상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상 검사 기사의 자유재량으로 컨트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보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자유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야 지시라는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으나 자유재량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에서도 1974년도 위원회(The Zuckerman Committee)에서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검토한 바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임상 검사 서비스, 방사선 서비스 부문에서 의료기사의 단독서비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의사와 의료기사 간의 서비스영역에 대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 왕립위원회(1977~1978년도)에서 서비스 제공자 문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바 있다. 동 검토위원회에서는 의료기사들이 업무수행 시 의사들의 영역 및 판단에 대해서 검토하였지만, 최종결론을 유보한 바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구분	규정	법률공표	규정대상
종별	의료기사 등 법률 제2조	법률 제9932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및 한계	의료기사 등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 제22075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이라는 문구는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한 서비스 책임자로 역할수행을 배제하는 대신에 의료기관에서 임상, 방사선 등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 의료기사가 법적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의 대학 방사선학과의 체계는 단계적인 학제 개편을 통해 3년제 및 4년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을 인정받은 우수한 인력들이 정부 연구소, 해외 연구소 등 학계로 진출하여 보건의료의 저변을 확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세계적 교육 수준을 교육과정에 편성했다는 의미이다.

의료기사 6개 직종의 석·박사 대학원 개설 현황은 101개(평균 17개, 2021년 기준)로, 이는 현재 의료기사들이 석·박사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를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임상 검증을 통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방사선학과를 포함한 의료와 관련된 학과에서는 간호대학과 같이 의료 보건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목적으로 인증제를 법제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의사들이 지도를 명분으로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 등을 종속시키는 것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규제하며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 현재 병원의 고용주(의사)에 의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박탈할 수 있다.

국회 2006년 의안 번호 4280(김선미 의원), 2006년 의안 번호 4998(장복심 의원), 2010년 의안 번호 7859(이종걸 의원), 2013년 의안 번호 5516(이종걸 의원), 2015년 의안 번호 13879(이목희 의원), 2021년 의안 번호 10163(남인순 의원)등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처방 및 협의로 하여 전문 직종으로서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하자는 법률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의 취지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국민건강증진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각 영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사의 지도권과 고용권이 남용됨에 따라 현 법령으로는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1973년 의료기사법 제정 이후 의료기사들의 단독법 및 법 개정과 관련하여 영업권 확보와 관련된 의사 집단의 입장은 무분

별한 의료기사의 개업권 보장은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나 이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사의 처방이 없는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굳이 단독개업을 반대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의료기사 연합단체의 입장은 의사의 지도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사의 지도권과 고용권이 남용됨에 따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이후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의사의 지도권을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기사법을 별도로 두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폐기하고 의료기사를 의료법으로 통합해 의료행위를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를 독자적 영역으로 분류해 의료행위영역 내에서 독자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의료기사 단체들의 요구 내용

각 의료기사 단체를 모두 열거하기는 지면이 제한적이므로 방사선사 단체의 입장들 들어보면 방사선사 업무를 행할 때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방사선사의 제도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업무가 폭주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현행 의료기사법에 규정돼 있는 '지도'는 '의뢰'로 하거나 현재의 의료현실에 맞는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각 의료기사단체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의료기사의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의료의 접근성과 효율성, 신속성 그리고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물리치료사 단독법의 경우는 이미 법을 완료했고 발의를 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작업치료사 단독법 또한 준비 완료 상태에서 국회의 공청회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그러나 6개 의료기사단체는 단독법 마련을 준비 중이거나 정책상 단독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에서 보면(의안 번호 10466)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하여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계속된 진료 및 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도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 및 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를 하였다.

이는 의료기사에게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직업의 전문성을 부여하여 의료기사의 책임성을 강조 확대하는 법이며 환자의 의무기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도 신설된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이유 또한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사에게 권한 및 책임이 없는 것은 의료수준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안전한 보건 의료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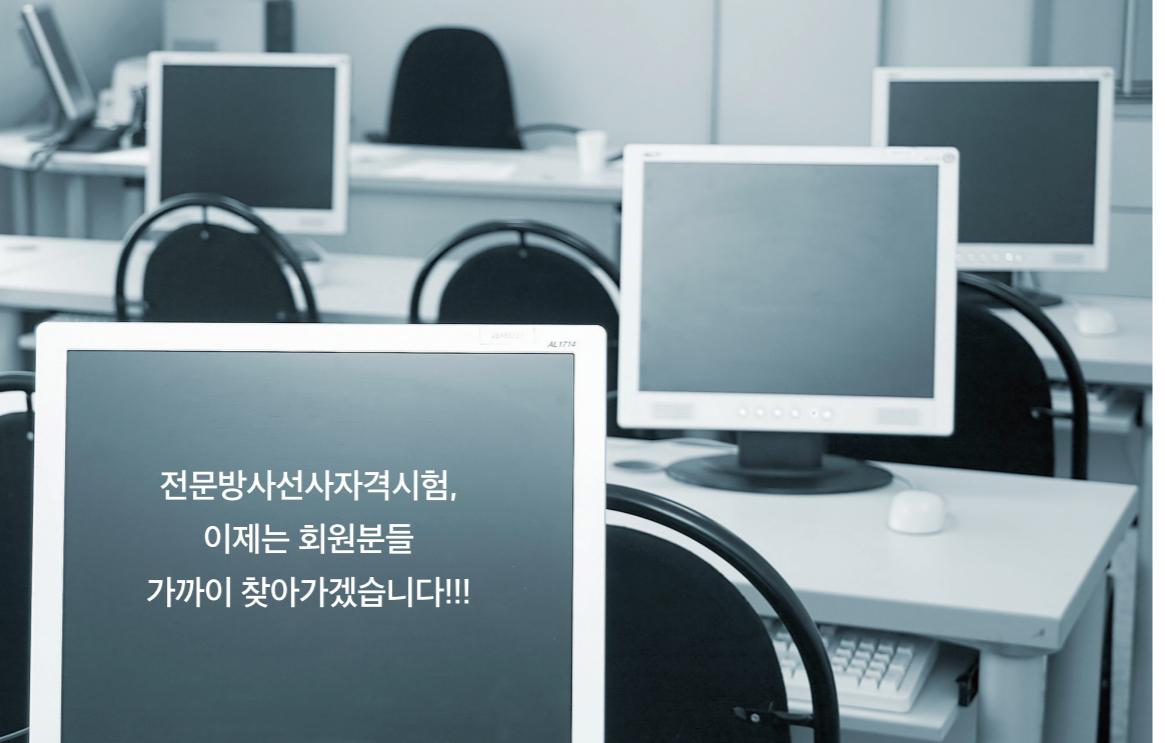
202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10163)에 의하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역사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의 법으로 8개 의료기사법을 전부 대변하기에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부적합하고, 보건의료체계는 전문성, 다양성, 국제화 추세와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과 전문화 제도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고, 더불어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의 문구를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함께 의료현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국가 면허시험의 자격과 역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독립된 의료기사의 역할에 대해 보건 의료인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며, 독립된 법 제정으로 의료기사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생각건대, 의료기사의 단독법에 관련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의사와 약사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의사의 구체적인 처방 하에 의료 및 진단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의료기사 단독법의 업무 범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화 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단독법 제정으로 의사와 의료기사 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❶



제19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권역별 분산 시행

글 윤일규(전문방사선사시험원장)

2021년에 처음 시행한 온라인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시스템은 대규모 인원이 집합 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규모로 상시 시행할 수 있는 온라인시험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로 총 2회의 온라인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온라인시험은 기존 종이 시험방식과 전혀 다른 시험이기에 개발과정부터 많은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회차 시험 당일 1교시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로 시험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부산에서 오신 회원분들이 예매한 열차표의 탑승이 불가한 상황과 이후 시간대의 열차표가 매진되어 시험을 정상적으로 응시하기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시험의 운영 부분과 지방에서 응시하는 회원들의 불만 사항 등을 언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교시를 예정보다 먼저 시작하여 열차를 이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매년 수도권에서 시험을 시행하면서 지방에 계신 회원분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하는 제19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은 회원분들이 수도권으로 오시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험장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5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으로 계획하였으며, 시험장소의 제한 등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분산 시행하지 못한 점은 회원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수도권 외 3개 권역(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의 시험장소 섭외를 위하여 권역 내에 소재한 14개 대학에 시험장소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협조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권역별로 신청한 대학의 시설현황, 전산 네트워크 환경, 인력 및 행정 지원 등의 현장 점검을 하여 수도권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경

기도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중부권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건양대학교, 영남권은 대구광역시 소재의 대구보건대학교, 호남권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동강대학교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시험계획에 포함했던 제주지역은 시험 일자와 장소 등 시험 시행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로 아직 시험 시행이 확정되지 않아 제19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시행공고에는 제외되었으며 추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 후 시험시행이 확정되면 추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제19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은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8월 호남권, 9월 영남권, 10월 중부권, 11월 수도권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리적으로 먼 곳에 계신 회원분들이 수도권 소재 시험장으로 찾아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회원분들을 가까이 찾아가는 시험 일정을 계획하였으나, 많은 회원분들이 각자의 생활권과 가까운 권역의 시험장에서 응시하

제19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일정 및 장소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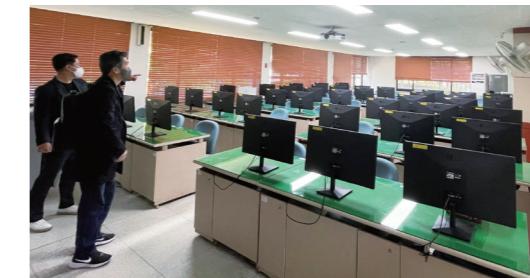
회차	지역	시험일	시험 장소
1회	수도권(성남)	7월 24일(일)	신구대학교 동관
2회	호남권(광주)	8월 28일(일)	동강대학교 전산교육관
3회	영남권(대구)	9월 25일(일)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4회	중부권(대전)	10월 23일(일)	건양대학교 죽현정보관
5회	수도권(성남)	11월 13일(일)	신구대학교 동관



수도권: 신구대학교 시험장



중부권: 건양대학교 시험장



호남권: 동강대학교 시험장



영남권: 대구보건대학교 시험장

우즈베키스탄 국립암센터 시술 참관기

글 정영채(고양 명지병원)



“세상에, 이 나라는 방사선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없단다. 이럴수가…
내가 언어를 배워 이 나라의 방사선사 선구자가 될까? 이런 생각도 잠시했다.”

지난 4월 25~29일까지 4박 5일간 지구의 서쪽 끝에 있는 유라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기회를 갖게 되어 참관 기간 동안의 소회를 적어보자 한다. 나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국립암센터와 타슈켄트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마리칸트 국립암센터에서 Chemo port(항암치료 중심정맥관 삽입), PICC(말초삽입형 중심정맥카테터) 시술 참관을 하였다.

올해 4월 초 해외봉사에 관심이 있던 걸 아셨던 인터벤션실 교수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시술을 보여주는 기회가 있는데 어시스트로서 갈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평소에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던 나는 교수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술할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우즈베키스탄이 어디에 있는지, 화폐 단위, 기후, 문화 등 무엇 하나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 긴장감마저 들었다. 또,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장비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시술을 위한 도구들이 필요할지 알 수가 없어 막막하였고, 의사소통 또한 원활하지 않아 사전준비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고민 끝에 최소한의 소독기구들을 제외하고 원내 국제팀과 협의하여 시술할 때 필요한 가운, 시술포, 멀균 장갑 등 시술실 안에 흔하게 있는 사소한 물품들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 우즈베키스탄에 갈 준비를 끝마쳤다.

4월 25일 드디어 출국 당일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PCR 검사를 받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부랴부랴 문서를 구하러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 다행히 인천국제공항 명지공항의원에 코로나19 검사하는 곳이 있어 서류를 받아 출국준비를 마치고 그렇게 모든 물품을 챙겨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더운 나라이줄 알았던 우즈베키스탄은 생각보다 덥지 않고 한국과 비슷한 기후였다. 들어보니 우즈베키스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4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했다. 덥기만 할 줄 알았던 나의 예상과는 반대였다.

부푼 마음으로 도착한 첫날, 도착 후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라마다호텔에 짐을 풀고 혹시나 빠진 짐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 후 저녁을 먹으러 갔다. 과연 우즈벡의 음식은 어떨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립암센터 병원장, 의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4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다 보니 식사가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서툰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식사 메뉴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말고기가 등장, 난감했다.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은 비즈니스 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문화가 있다. 술이 약한 나로서는 1시간이 하루같이 길게 느껴졌다. 이렇게 첫날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루가 지나갔다.

4월 26일 둘째 날

타슈켄트 국립암센터를 방문했다. 이번에 국립암센터에서 요청한 시술은 Chemo port와 PICC였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술실에 어떠한 장비가 있는지 시술을 위한 최소한의 물품들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안타깝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환경이 열악했다. ANGIO 장비가 없어 C-ARM으로 대체하였고, 환자가 누워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침상 또한 높낮이 조절 기능도, 바퀴도 없는 침대였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국내에서 사소한 것들까지 쟁기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필요한 재료 대가 없어 부탁을 드렸다. 하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시술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낯선 환경, 덜 준비된 시술실, 부족한 인력 등 국내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에서 시술을 시작하니 주위엔 시술을 참관하기 위하여 모인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가득 찼다. 등에서는 연이어 식은땀은 나고, 도대체 방사선사는 어디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 나라는 방사선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없단다.



이럴수가… 내가 언어를 배워 이 나라의 방사선사 선구자가 될까? 이런 생각도 잠시, 쉴 틈 없이 예정된 시술은 진행되었고 식사도 못하고 의뢰받았던 환자들의 시술을 끝내고 나니 오전 10시에 시작한 시술이 오후 4시에 끝났다.

참관한 의료진들과 사진도 찍고 서툰 언어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암센터의 일정을 무사히 끝마쳤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도 잠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으로 향하였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찰나,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장소가 다행히 한국 식당이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우즈베키스탄 음식도 맛있었지만 역시 한국인은 흰 쌀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보편적인 경험을 했다.

4월 27일

사마리칸트에 있는 국립암센터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타쿠肯트에서 한국의 KTX와 비슷한 속도의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정도 이동을 하여 사마리칸트 국립암센터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TACE(간동맥화학전술)시술을 할 예정이었지만 ANGIO 장비가 없어 시술하지 못하고 전날 하였던 Chemo port 시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날 모든 물품을 타슈켄트 국립암센터에서 소진하고 와서 물품이 없던 와중에 한국에서 교수님께 연수를 받았던 우즈베키스탄 의사 오델 선생님이 Chemo port 물품을 가져와서

환자 한 분을 시술할 수 있었다. 이곳 또한 어제 방문한 암센터와 환경이 비슷했다. 물품은 부족했고, 시술을 보러온 분들 때문에 소란스러워 교수님과의 소통마저 힘든 상황이었다. 다행히 한국에서 같이 간 통역 선생님의 활약으로 무사히 시술을 끝마칠 수 있었다. 준비해 간 재료대를 다 소진한 탓에 일정이 일찍 끝나 점심 식사 후 잠깐 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

사마리칸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관광지라 볼 것들이 무척 많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별로 없어 대표적인 관광지만 보러 다녔다. 레기스탄 광장에 가서 보니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레기스탄은 '모래땅'이란 뜻으로 옛날에 모래로 뒤덮인 사막이었다고 한다. 공공의 광장으로 왕의 알현식, 공공집회, 죄인의 처형 등이 행해졌고, 티무르 시대(1336~1405년)에는 대규모 노천시장이 있었으며, 그의 후손인 울루그벡 시대(티무르의 손자)에 처음으로 메드레세가 세워졌으며 메드레세의 맞은편에 하나카가 있었다. 광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은 그 후 샤이바니 왕조(15~16세기)의 야한그도슈 바하도르에 의해 다른 2개의 메드레세가 건립된 이후이다. 3개의 메드레세가 건립된 이후 레기스탄 광장은 이슬람 교육의 중심지로 명성이 자자하였으며, 그 후 구소련 시절에는 이슬람 종교의 탄압으로 다시 거대한 노천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이슬람 교육의 장소도 아니고, 노천시장도 아닌 관광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관광을 마치고 타슈켄트로 돌아왔다.

4월 28일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첫날 갔던 국립암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첫째 날 시술 중에 우즈베키스탄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해보고 싶다는 말에 교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Chemo port 시술을 해드린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에게 작은 이벤트가 생겨 그 환자를 확인한 후, 첫날 시술을 해드렸던 환자를 한분 한분 찾아뵙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상은 없는지 확인했다. 그렇게 진료를 끝마치고 암센터에서의 일정은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그 이후 가본 곳은 또 다른 사립병원이었다. 여기서 느낀 놀라움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의 격차가 이렇게 심할 줄이야. 한국의 의료기관과는 사뭇 다른 점이 많았다. 사립병원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

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진료비 또한 너무 비싸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의료 참관에서 느낀 점은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선진국에 벼금갈 정도로 우수하다는 것이다. 보건 의료정책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의료보험 덕분에 누구나 아프면 참지 않고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꼈고, 의료 수준 또한 한국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❾



66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덕분에 누구나 아프면 참지 않고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꼈고, 한국의 의료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99



방역은 '함께'해야 하는 '각자'의 의무다

글 양한준(前 을지대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잊었다. 어떤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제개념에서 경제학자인 윌리엄 비스쿠시 밴더빌트대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경기 불황의 상황에서 둘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코로나19 사망자를 돈으로 전환해 비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2021년 말까지 공식 집계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 약 560만 명을 계산하면 총사망 비용은 38조 달러(약 4경 6,322조 원)로 추산되고,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40%가 된다는 자료를 접했다. 하지만 비공식 코로나19 사망자까지 포함한 실제 사망자 수에 대한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추정치 1,700만 명을 대입하면 사망자 비용은 다시 114조 달러(약 13경 8,966조 원)로 급증하게 되고,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120%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손실의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현실은 선진국이 겪는 딜레마보다 더 냉혹하다. 갚아야 할 외채가 급증하고 대출은 규제되면서 경기는 빠르게 침체한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는 경기를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

백신 불평등과 열악한 의료시스템도 이들 국가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고, 부국과 빈국의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에서부터 인플레이션, 기후 위기 문제까지 복잡한 문제가 얹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용과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개인과 집단의 손익 까지 정확히 비교하는 건 어렵다.

요즘 나는 보스턴에서 지내며 여러 상황의 뉴스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 느꼈던 것보다 다른 시각의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하는 범위도 넓혀본다. 이런 상황에 눈에 띈 내용이 하나 있다. 보스턴대학교의 신종감염병 정책연구센터의 시라마다드 교수는 감염이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감염병에 의한 위험은 너무 크고 잊을 것이 많다. 예방 접종, 테스트 및 마스크 착용을 통해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 위험에 처했지만, 개인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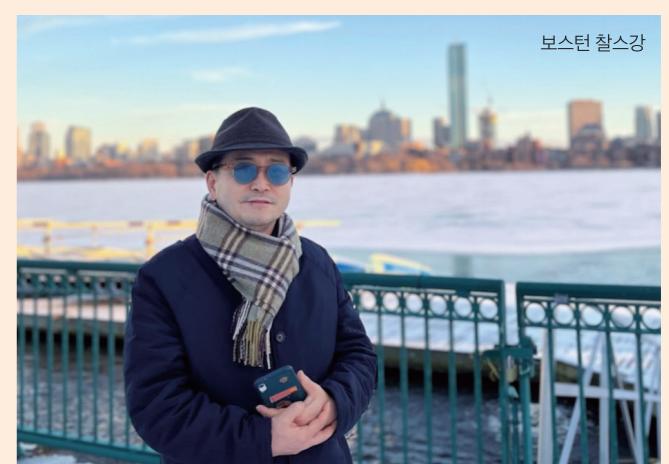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23일 그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과학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존한 정치방역은 분명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기사도 읽었다.

복잡한 경제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꾼들의 입바른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팬데믹을 일으킬 다른 단계에서도 예방 조치를 취하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지금 미국은 연방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마스크를 추가로 구매하고,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의 여운과 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연구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본인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라는 시라마다드 교수의 말에 더욱 공감이 간다.

이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위기 징후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해내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택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선택지인 것이다. 다음에는 더 파괴적인 위기가 찾아오리라는 우려를 떨치면 안 된다. 이제 방역은 ‘함께’해야 하는 ‘각자’의 의무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연구 논문에서 방사선사의 COVID-19의 전파경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전파경로의 인식 수준이 오를 때 감염 예방 이행 수준도 높다고 보고했다. 이는 방사선사가 전문 능력을 갖춘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하게 하는 자료로 읽었다. 코로나19 시대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방사선사들의 노고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❶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진단체계 구축

글 송대영(충남대학교병원(세종))



질병관리청은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발생에 대비, 검사체계를 구축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세계적으로 근절 선언된 사람 두창과 유사하나,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증상은 2~4주간 지속되며 대부분 자연 회복된다. 최근 치명률은 3~6% 내외(WHO)이고,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전신과 특히 손에 퍼지는 수두 유사 수포성 발진이 특이증상이다.

전파는 병변, 체액, 호흡기 비말 및 침구와 같은 오염된 물질과 의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염되며 그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2022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최근 이례적 유행의 원인에 대한 세계적 정보가 없으며, 해외 여행 증가와 비교적 긴 잠복기로(통상 6~13일),

최장 21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 관리청은 그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진단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 및 시약’ 개발과 평가까지 완료하였다(2016). 진단검사법은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ealtime-PCR)으로 100개 정도 바이러스까지 검출 가능한 검출민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원숭이두창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 신속히 환자를 감별함으로써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발생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한편 국내발생에 대비 의협, 관련 학회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관리대상 해외감염병 지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66

원숭이두창(monkeypox)은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전신과 특히 손에 퍼지는
수두 유사 수포성 발진이 특이증상이다.

99

〈원숭이두창 국외발생 상황〉

유럽 및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발생 및 의심사례가 보고된 ‘22년 5월 이후의 원숭이두창 감염자는 나이지리아 등의 원숭이두창 풍토병지 역으로부터 해외유입이 아닌 주요 도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한 밀접한 신체접촉으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해당 국가에서 조사 중에 있다.❶

순서	지역	국가	확진(명)	의심(명)	
1	유럽	영국	106	0	
2		포르투갈	96	0	
3		스페인	116	77	
4		스웨덴	2	0	
5		이탈리아	12	2	
6		벨기에	9	0	
7		프랑스	16	2	
8		독일	22	1	
9		네덜란드	26	6	
10		스위스	4	0	
11		덴마크	2	0	
12		오스트리아	1	0	
13		체코	5	0	
14		슬로베니아	2	0	
15		핀란드	1	0	
16		아일랜드	1	1	
17		몰타	1	0	
18	미주	미국	14	0	
19		캐나다	26	37	
20		아르헨티나	2	0	
21		멕시코	1	0	
22		에콰도르	0	1	
23		볼리비아	0	1	
24		브라질	0	1	
25	중동	페루	0	1	
26		호주	2	0	
27		이스라엘	2	1	
28		아랍에미리트	4	0	
29		이란	0	3	
30	아프리카	파키스탄	0	1	
31		수단	0	1	
전체				473	
				136	

국외 원숭이두창 발생 현황(2022년 5월 31일 09시 기준)
발생 현황: 31개국 확진 473명, 의심 136명

신한대학교 학점은행제 방사선학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1년 과정 모집



우수한 접근성

망월사역(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장학혜택

다양한 장학혜택



역사성

50년의 역사와 전통

모집기간 2022.07.04.(월)~2022.08.12.(금)

등록기간 2022.08.17.(수)~2022.08.19.(금)

납부방법 계좌이체(가상계좌)

개강예정일 2022.09.01.(목)

전형방법 선착순 모집

접수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문의 031) 870-3813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022년 7월 중 <http://life.shinhan.ac.kr>에서 모집공고)

모집전공

전공명	정원	지원자격
방사선학전공	80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예정자)

학점은행 모집과정

* 표시는 신한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전공명(1년과정)	정원	전공명(4년과정)	정원
방사선학전공	80	사회복지학전공*	40
간호학전공	80	태권도학전공	40
임상병리학전공	80	체육학전공	40
		사회복지현장실습	160

기타 모집과정

경기도 주관 사업 과정	정원	지도자 과정명	정원
귀농귀촌대학(토)	70	커피바리스타과정	15
조경가든대학(토)	40	직업상담사과정	15
시민정원사(금)	30	조경기능사과정	15
민간경비교육(화,수,목)	30	승강기기능사과정	15

망월사역 바로 앞

신한대

망월사역

도봉산역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40 Sketch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천년 고찰(古刹)
부안 내소사 기행

46 Insight

미래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방사선사

50 Thinking

리더십 I

조직을 이끄는 힘

54 Pause

요리 명인과 함께하는 미식 여행
와인의 모든 것

57 Cartoon

Zoom - in

58 Webtoon

숨 참으세요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천년 고찰(古刹)
부안 내소사 기행

글 유명근 | 사진 제공 부안군청

WITH KRTA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명산과 동고동락 하고 있는 산과 물아일체 경지의 고찰. 필자가 사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합천 해인사, 해남 미황사 그리고 부안의 내소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찰이 주는 마음의 여백에서 잠시 쉬어보시기를 바란다.

그중 부안 내변산에 자리한 내소사 여행기를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내소사를 간 기억은 100대 명산 여행을 하며 내변산 등산을 마친 후 들른, 너무 짧은 시간에 둘러본 기억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산행에 지쳤고 안내산악회가 그 렇듯 산행 마감 시간에 쫓겨 수박 곁핥기로 둘러본 내소사. 그러던 중 이대목동병원에 근무 중인 친구와 얘기 끝에 내변산과 내소사 얘기가 나와 의기투합하여 선뜻 이뤄진 여행이었다.

부안행

장마 때인지라 주말인데도 버스는 거의 비어 있 다시피 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 도착한 부안 터미널에는 누구 하나 기다리는 사람 없이 깊은 어둠과 긴 적막이 가득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는 한숨을 쉬며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담배를 피워 문다. 어디서 잘까? 저녁도 먹기 전인데. 준비 안 된 여행의 시작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도 나보다 준비성이 있던 친구는 터미널 부근 숙소를 미리 생각해 놓았다. 그중 가까운 곳을 찾 아냈고, 중년 사내 둘은 밤에 북극성을 좌표 삼아 걷는 여행자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모텔 속으로 사라졌다.



여행지의 밤

여행의 첫날 밤은 항상 설레며 흥분이 된다. 처음 보는 복도와 침실 그리고 창. 퀘퀘한 냄새조차도 여행자들이 남겨 놓은 낙서처럼 정겹다. 사내 둘의 여행 첫날에 빠질 수 없는 술. 고속도로를 달려오며 밤길을 감상도 못하고 비축해 놓은 체력과 여행지의 신선함이 모든 감각을 깨우고 또 채운다. 빈 찬에 차려진 술상. 이런저런 얘기와 쌓여 가는 빈 병들. 시간은 늘 불공평하다. 즐거움에는 가혹하리만큼 빠른 화살처럼 날아 과녁에 꽂힌다. 자정이 훨씬 넘고 술병이 한쪽으로 모일 즈음, 내일 내변산에 오르기 위해 잠을 자야 한다. 얼마나 잤을까. 창밖에 벗소리가 들린다. 여행지에서 듣는 벗소리는 낭만적이지만, 내변산에 오를 아침이 걱정되는 새벽이다.

여행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는 비가 만만치 않다. 정상을 빠른 산길로 들어갔다가 나오려 했지만 이런 장맛비에는 산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진다. 따뜻한 옥수수를 사서 한 입씩 배어 물고는 서로 산에 갈 수 있을까? 하며 묻는다. 그래 산은 나중에 시간 내서 오고 내소사에 가서 좋은 구경이나 하고 오자며 계획을 바꾸었다. 내소사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부안 터미널 안에는 체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끈적거리는 공기가 채워진다. 밤과 달리 낮의 터미널은 오가는 사람들과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 도착한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들로 생동감을 넘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우리도 가벼운 짐을 들고 새로운 여행지를 향해 떠난다.



WITH KRTA



내소사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내소사. 검은 아스팔트 위로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비가 내린다. 기름 바른 것처럼 반들반들 윤이 나는 아스팔트 양 옆 상가에서는 오랫동안 알아온 것처럼 스스럼없이 호객을 한다.

친구는 우산을 쓰고 기름 먹인 듯 반들반들한 길을 생각에 잠겨 앞서 걷는다. ‘능가산 내소사’라 적힌 일주문.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일주문. 해남 미황사 일주문을 가려면 도로를 따라 울울창창



나무들을 사열하듯 오르는 멋진 길을 지난다. 부안의 내소사 일주문을 지나자 즐비하게 쭉쭉 뻗은 전나무들이 푸른 터널을 만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절로 감탄을 내지른다.

비가 내려서일까. 전나무 냄새가 진하고 향긋하다. 전나무의 푸르른 사열을 향긋하게 끝내고 나면, 꿈에 볼까 무서운 사천왕이 지키는 천왕문을 지난다. 전각들이 소실된 자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넓은 마당이 나오고, 천년이 넘은 당산나무는 사계절 중 푸르름으로 사바대중을 맞고 있다. 마당과 당산나무를 지나면, 불법(佛法)을 언어가 아닌 소리로 세상에 알리는 고려동종이 있는 보종각, 범종 범고 목어가 있는 범종각이 있다. 그 뒤로 채색은 세월의 뒤안으로 사라져 버린 2층 누각 봉래루가 나온다. 봉래루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내소사의 심장인 대웅보전을 볼 수 있다.



봉래루 누각에 올라 사계절 언제든 전나무 길을 바라본다면 그 곳이 극락이리라. 봉래루를 지나면 대웅보전이 정면에 보이고 좌측에는 무설당, 우측에는 설선당이 있다. 무설당(無說堂)!!! 이름 참 멋지지 않은가. 말하지 않고 부처의 법을 배우는 집. 묵언수행을 하며 부처의 길을 정진하는 곳. 수다스러운 나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경지다. 무설당을 마주하는 설선당은 부처의 길을 사람의 언어로 풀어내는 집. 특히 설선당의 멋스러움을 제대로 느끼려면 당산나무를 지나기 전 범종각과 함께 보이는 돌담 밑에서 바라보면 내소사의 또 하나의 멋스러움을 알 수 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창공을 날 듯 무설당과 설선당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말로 부처의 길을 배우는 길과 말없이 부처의 길을 깨닫는 것을 균형잡으며 정진하라는 의미인가 보다.

대웅보전 앞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삼층석탑이 있다. 세월의 흔적만큼 색도 바래고 모서리 부분

도 부드럽게 무뎌져 있다. 대웅보전을 오르는 돌계단은 대충 쌓아 올린 듯 투박하고 정교한 멋은 없지만, 오랜 시간 고향을 지켜온 아버지의 손등을 보는 것 같아 정겹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대웅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울긋불긋한 화려한 단청은 지난 세월에 지워지고, 나무가 갖는 본연의 색으로 사바대중을 맞이하는 내소사 대웅보전.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불화에 대해서는 눈 뜯 장님인지라 눈여겨 보지도 못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이 천 번 만 번 맞는 말이다.

눈을 들어 대웅보전의 천정을 보면 일정한 격자 안에 연꽃 봉우리를 조각했고 좌우로 용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를, 다른 하나는 여의주를 물고 있다. 대웅보전 창호의 창살에는 연꽃, 해바라기, 국화꽃 문양을 새겨 놓아 이채롭다. 창살의 단청은 세월과 함께 퇴색되어 사라지고, 바람이 지나 갔을 창살에 옛 목공의 손길이 드러난다. 여유롭게 창살에 손을 대고 세월의 흔적을 느껴보시라.

대웅보전을 돌아가면 예쁜 돌계단이 보이고 돌계단 옆에 나무 한그루가 있어 참으로 예뻐 보이는 길이 보인다. 삼성각으로 오르는 길이다. 삼성각 안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다. 낮익은 사진 하나와 옆으로 사진 둘. 맨 우측에는 대한민국 산악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산악그랜드슬램(지구 3극 점, 히말라야 14좌 완등, 세계 7 대륙 최고봉 완등)을 이룬 박영석 산악대장. 2011년 10월 안나푸르나 남벽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등반 도중 실종되었다. 아마 옆 사진 둘은 같이 올랐던 대원의 사진일 것이다. 삼성각에 바라보니 내소사가 비에 단아하게 젖고 있다.

부안의 맛, 백합조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맛 아닌가? ‘부안’하면 백합조개와 백합죽. 이름이 꽤 난 계화식당에 가서 백합정식을 시켰다. 백합조개전으로 허기

를 살짝 달랜 후 백합조개구이를 여는 순간 품고 있던 바다 내음을 입안 가득 넣어 본다. 콩나물에 벼무려진 백합찜. 입안에 모든 잡내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백합탕. 참기름을 살짝 둘러 고소하면서 여백의 미가 남는 백합죽.

짧게 마무리한 남도의 부안 여행. 비가 그치고 나니 칠월의 햇살이 만만치 않게 뜨겁다. 몸은 칠월의 부안거리에서 축축 늘어져 가고 터미널까지 걷는 거리에서 피곤이 밀려왔다. 서울에는 저녁이나 되어야 도착할테고, 서로의 안식처로 헤어질테고, 월요일 아침이 지나고 다시 주말이 오는 금요일이 돼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릴 때 대책 없이 떠난 여행을 추억에서 꺼내 달콤하게 기억하겠지.

2022년 5월에 이 글을 정리하며 방사선사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벗님들~~~ 어디든지 떠나시죠!!!❾





미래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방사선사

글 안성현(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과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을 졸업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다. 나아가 저마다 특기와 취미를 가지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방사선사들은 앞으로 각자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과 개발을 통해 영상의학과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눈부신 의료 기술 발달의 중심에 방사선사들이 있다.

의료기기 발달의 키워드, 융합(convergence)

자기공명영상검사(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장치를 사용하여 세밀하고 섬세한 영상을 나타내고, 그것을 획기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더 큰 고장을 사용한다면 더 좋은 영상을 나타내어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병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직은 기대만큼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장일수록 움직임에 민감해지고, 인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

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많은 방사선사들은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새로운 융합시스템에 다양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MR-LINAC(Magnetic Resonance Linear Accelerator), PET-MRI(Positron Emission Tomography-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초음파 융합 전립선 조직검사법(MRI TRUS Fusion Prostate Biopsy)이 개발되면서 환자의 진단에 있어 도움을 얻고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1.5T 자장의 MRI와 6MeV의 라이낙이 융합된 MR-LINAC 장비를 도입하여 환자 치료에 힘쓰고 있다. 기존 X-ray를 통해 나타내는 OBI(On-Board Imager) system, EPID(Electronic Portal Image Device) system보다 영상의 화질이 향상되었고, 치료 목적 부위의 정확도와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상 조직과 종양의 경계 구분 및 종양의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다. MR-LINAC(Unity)은 전 세계 22개 병원에서 가동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2021년 8월

처음 도입하였고, 그해 10월에 봉헌식을 가졌다.¹ 환자의 피폭을 줄이면서 치료 부위의 정확성을 높이는 융합시스템인 MR-LINAC의 기대는 앞으로도 커질 것이며, 이를 운용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과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PET-MRI(Positron Emission Tomography-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이끌었다. 2011년 부산대학교병원이 처음으로 Philips사의 PET-MRI를 도입하였다. 뒤를 이어 영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암병원도 SIEMENS의 PET-MRI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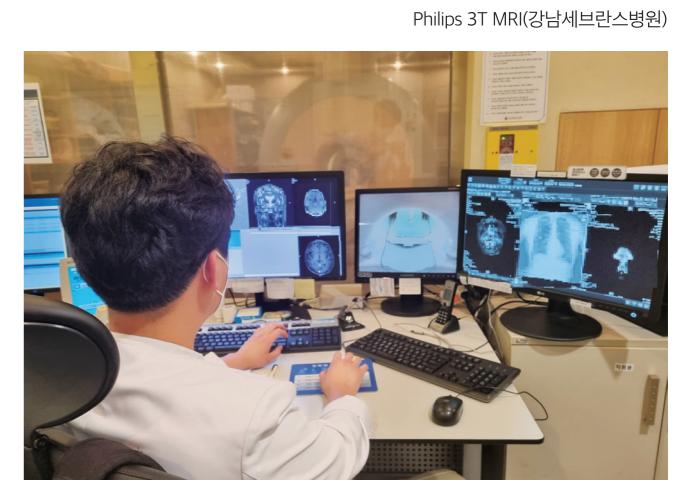
기존 PET-CT의 CT 피폭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피폭이라는 불편한 단점을 보완하고 MR과 PET영상을 동시에 획득하여 진단 시간을 단축시키고 많은 분류의 암 진단, 뇌신경 질환 등의 진단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을 부각시켰다. 융합시스템에 있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가능하게 만든 한 사례이다.

융합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은 장비 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에 있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간암센터에서 시행한 미세공기방울조영제(Sonazoid)를 이용한 초음파와 MRI 융합 영상을 통한 치료 및 검사 사례를 살펴보자. 추가적인 종양 발견 및

강남세브란스 MR-LINAC(Unity)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영상의 질을
최적으로 맞춰주고
찾아주는 단계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시기에 방사선사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기기를 조정하고 운용하는 방사선사는
AI의 모든 업데이트의
기반이 되는 과정을 다루는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이 될 것이다.



자료들과 필기 노트를 직접 주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 방사선학과에서는 창의적 방사선과학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제작 및 발표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에서도 학생들의 방사선 연구를 통해 방사선사가 되기 전 방사선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다양한 이론들을 접해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대다수의 방사선사들이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나서도 꾸준한 학습과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발전하는 미래의 의료시스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인공지능 그리고 방사선사 역할의 비전(AI & Vision)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일컫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고가 그 예시이다. 알파고를 넘어 이제는 의료시스템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다.

현재 Python, JAVA와 같은 컴퓨터 언어의 학습은 기본이 되어가고 있다. 영상의 화질 판단에 있어 필터를 적용시키고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적합하게 만드는 연구를 기반으로 영상의 질을 최적으로 맞춰주고 찾아주는 단계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시기에 방사선사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기기를 조정하고 운용하는 방사선사는 AI의 모든 업데이트의 기반이 되는 과정을 다루는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이 될 것이다. 또한, 진단 검사에 있어 다양한 코드 연구를 통하여 미래에는 방사선사의 역량에 따라 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 방사선사의 업무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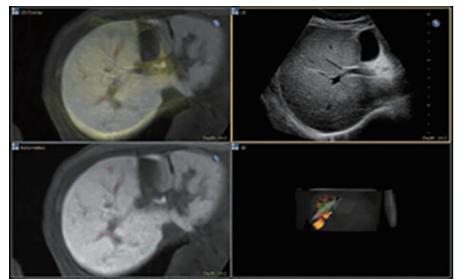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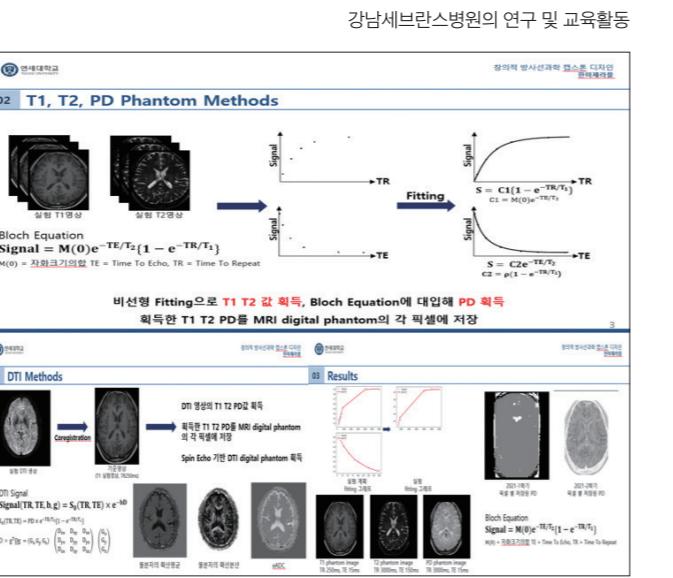
이제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같이 스스로 학습하는 AI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며, 이를 어떻게 개발하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미래의 방사선사는 환자에게 맞춤형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기기를 운용하지 않을까? 거기에 방사선사의 비전이 있고, 이 비전의 출발점은 현재의 방사선사들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

및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에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직접 적용함으로써 방사선사와 환자 간의 소통을 추구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병원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도모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방사선사의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의 방사선사는 MR, CT, US 등 다양한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각 파트에 대한 QI는 중요한 요점이며 많은 창의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방사선사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취미를 QI에 적용시키고 회의를 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것은 다른 병원 방사선사들과 같이 환자의 편리와 병원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증가시키기는 영상의학과만의 장점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교육(Education)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응시하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증 취득 이후에도 임상에 있는 많은 방사선사들은 자신이 공부한 방법이나 노하우 등을 가르치고 공유하면서 후배들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임상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매주 실기 특강을 진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많은 대학병원에서도 이렇게 특강과 시험을 진행하며 후배들에게 많은 임상 지식과 더불어 이론 지식을 함께 나누어주고 있으며, 각 선생님들이 공부하였던



MR-초음파 융합 영상

고주파 열치료에 활용하여 98.4%의 치료 성공률, 3년 추적관찰을 통해 국소재발률 7.4%를 기록하였다. 또한 전립선암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2017년 분당차병원에서 MRI 영상과 초음파 영상의 융합기법을 통해 암 위치를 정확히 찾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삽입해 치료를 진행하였다.²

또한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립선 조직검사 시 MRI와 초음파 영상을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3차원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장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초음파 영상에 CT, MRI, PET 등 다른 의료 장비를 결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퓨전' 기술을 사용하였다.

방사선사는 CT, MRI, PET, LINAC, 초음파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다루는 직업이다. 이와 같은 융합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은 의료기기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를 다루는 전문적인 방사선사의 생각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검사만을 위한 기기 운용에 그칠 것인가? 한발 더 나아가 의료기기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전과 연구를 통해 새로워진 의료기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이야말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I, 병원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QI란 Quality Improvement의 약자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구성 요원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측정,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뜻한다. 영상의학과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각 파트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병원의 메아리 같은 활동이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들은 QI 활동을 위해 각 역할을 분담하고 활동의 적극성을 나타내기 위해 영상회의

¹ 이상만. 강남세브란스, 최첨단 방사선 암치료 시스템 '유니티' 개발. 의학신문. 2021.10.15.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130>

² 신영인. 분당차병원, 세계 최초 MRI와 초음파영상 융합한 전립선암 '브라키테라피' 시술. MD Journal/daily. 2017.08.30. <http://www.md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27618>

리더십 I 조직을 이끄는 힘

글 양진영(로고스코칭센터 대표, 서울여성병원 영상의학과 실장)

지난 호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기발견과 삶에 대한 통찰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데 기초가 되며,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가는 지름길이 된다. 또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방사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직업은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통로인 동시에 나의 존재가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직업인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발견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한 기초를 파악했다면, 이번 호부터는 조직에 대한 실전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모두에게 필요한 리더십

가장 먼저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이 팀리더(관리자)에게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리더십을 갖추고 보다 주도적이고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경이로운 일이다. 팀리더에게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이라면, 우리 각자에게 리더십은 나의 존재를 멋지게 표현하는 태도이자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리더십의 어원을 먼저 살펴보자. 'Lead'라는 단어는 라틴어 'leden'에서 파생하였으며, 'to make go, to guide', 번역하면 '안내하다' 또는 '함께 간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리더

십(Leadership)은 리더(leader)와 배(ship)의 합성어로서, 리더가 배를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능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리더가 배를 항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방향성이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배가 목적지를 잃게 되면 물 위에 떠서 정치 없이 돌아다니듯,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조직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고, 타 부서에게 맞춰가게 된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며, 영상의학과 조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직구성원들은 리더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부서의 색깔을 잊어버린 채 다른 부서의 의도에만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조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는 조직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영상의학과가 존재하는 이유와 의료서비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임을 조직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하고, 방사선사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리더는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사의 직무를 통해 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속도이다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물살과 풍향에 따라 적절한 속도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차분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추진력을 가지고 속도를 내야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구성원들의 성장,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저함 없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권한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할 때 속도를 내야 한다. 권한을 가진 자는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돌보아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권한이 적고 힘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조직의 수많은 관리자들은 자신의 권한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열정을 쏟는다. 그러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 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관리자들의 특징은 자신보다 권한이 없는 약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부릴 뿐이다. 이러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없다. 조직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곧 정의가 되어야 한다. '관리=정의'라는 공식을 기억하자.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철저히 내려놓고, 자신보다 약자를 돌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책임과 섬김의 태도를 보

여야 한다. 직위나 직책 등의 타이틀을 얻기 위한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낮은 자를 위해 자신의 열정을 사용할 때,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배가 항해할 때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 속에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배가 무조건 달리면 풍향과 물살의 변화에 따라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때론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직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존재한다. 구성원들 간의 문제, 부서 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와 어두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인내하지 않으면 대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잘못된 태도나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리더는 인내하면서 언제나 공정과 원칙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물 아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배는 물 위를 떠다닌다. 그러나 물 아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물 아래의 모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더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조직구성원들이 뭔가 잘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 그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 이면의 숨겨진 마음이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내면의 감정, 상처, 신념, 가치, 경험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움직인다.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고 바로잡는 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아픔이나 상처, 어두움 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통찰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리더의 역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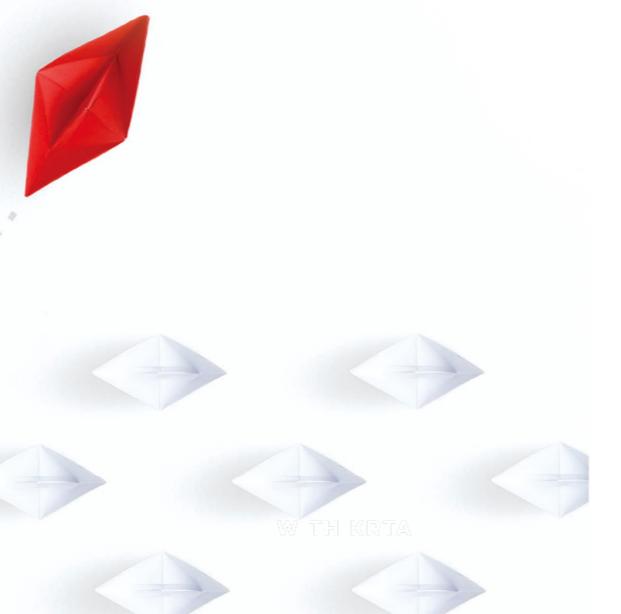
또한 눈에 보이는 성과는 물 위의 것을 의미한다. 리더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조직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며, 성급한 결정을 내려 조직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한다. 화려해 보이는 것, 근사해 보이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 위의 것들이다.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때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다. 물 아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때론 본질적이고 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협회나 학회의 학술대회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인다. 규모가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은 자신의 연구(업적)를 발표하고, 축하해 주고, 함께 어울려 자신들의 관계를 더욱 구축해 나간다. 그러면서 서로 도전받고 격려하면서 영상의학기술은 더욱 성장해 나가게 된다. 분명 좋은 일이고,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늘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거듭 성장해 가는 학술대회나 행사들을 보면서 우리만의 리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임원분들의 노력과 에너지는 정말 놀랍다. 정말 애쓰시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마땅하고 박수쳐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이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자신들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등록 수를 늘리는 행위 등은 물 위의 보이는 것만을 쫓는 것이다. 등록 수가 많아야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야 학회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학술대회나 보수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학술대회가 마치 대형 병원근무자들만의 리그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물 아래의 것을 보아야 한다.

협회나 학회의 관심사가 대규모 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홀로 힘겹게 환자를 케어하며 방사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간호조무사의 비인격적인 행동 때문에 힘들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힘겹게 방사선사 직무를 수행하는 그 한 사람... 아직도 필름을 현상하며 생계를 이어 가는 그 한 사람... 면허 취득 후 취업했는데 막상 인계도 못 받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해서 학교 다닐 때 보던 촬영학 책을 찾아보면서 힘겹게 근무하는 그 한 사람....

그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 아래 숨어 있기 때문이다. 협회나 학회는 권력과 힘을 가졌고, 수많은 인재(자원)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성과를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물 아래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기술과 지식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 나누고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과거에 대학병원을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의 로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검사했던 목록을 보니, 영상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고백은 로컬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펌훼하는 것이다.



아니다. 추후 로컬에서 근무하는 여러 지인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알게 되었다. 그분들은 로컬에 들어간 뒤 체계적으로 촬영학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어느 병원은 출근했더니 방사선사도 아닌 원무과장이 촬영을 가르쳐 줬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서울 시내의 한 내과에서 기관지염으로 인한 천식 진단을 받았다. 그 병원에서 벌어진 일은 나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 먼저 심전도를 찍고, 혈액검사를 진행한 후, 흉부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심전도와 혈액검사를 해주던 선생님이 나를 촬영실로 안내하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포지션을 잡고, 촬영을 하는 것이었다.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 기가 막혔다. 이 선생님의 행동과 수행 능력은 정말 자연스럽고 배태랑다웠다. 아마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것 같았다. 방사선사가 임상병리 업무까지 한 것인지, 아니면 임상병리사가 방사선사 업무까지 수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방사선사의 가치를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 이러한 의식을 가진 의사나 운영자 밑에서 방사선사의 권리나 권한은 있기나 할까?라는 걱정이 들었다. 학술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참석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방사선사의 가치를 더럽히고 권리를 빼앗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 시급할지도 모른다. 또한 큰 병원에서 선임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많은 study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다. 그러한 감사한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들만의 리그로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기 보단, 그 경험을 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 열정을 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리더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고, 역할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등록한 것 보다, 그 한 사람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큰 깨달음을 얻게 했다면 그것이 수백 명을 등록한 성과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다. 리더는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도록 스스로 성찰하고, 구성원들이 조직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리더는 영상의학과가 존재하는 이유와 의료서비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임을 조직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방사선사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는 날씨이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배를 이끄는 선장은 이러한 변화와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며 안전하게 배를 이끌어야 한다. 조직의 리더는 변화무쌍한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한 원칙이나 질서를 갖춰 놓고, 혼들림 없이 나아가야 하며, 상황이 변화하면 언제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구성원들의 특징과 성향,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상의 팀빌딩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강점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호는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리더가 지녀야 할 의식, 그리고 리더는 어떠한 관점으로 조직과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지 통찰해보았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야겠다. 다른 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저마다 원하는 리더의 모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를 기원한다.❶



요리 명인과 함께하는 미식 여행

와인의 모든 것

글 송충현 요리 명인

건강하게 즐겁게, 또 아름답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에 곁들일 수 있는 다양한 주류 중 하나인 와인, 와인의 종류와 와인 고르는 방법, 와인과의 완벽한 마리아주를 위한 음식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와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한 카테고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와인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가장 먼저 와인은 성질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Natural Still Wine(14° Alc. or less)

시럽이나 당분을 첨가하지 않고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포도만을 가지고 양조한 와인

② Sparkling Wine(14° Alc. or less)

발포성 와인을 말하며 대표적인 것은 샴페인

③ Fortified Wine(16° Alc ~ 23° Alc.)

중성주정이나 브랜디 등 재료들을 가미하여 도수를 보강한 와인

④ Aromatized Wine(15° Alc. ~ 20° Alc.)

Natural Wine을 보강시킴과 아울러 허브 등 여러 가지 향료를 넣은 와인

66
서로 어울리는 음식과 조화를 맞추어 최상의 맛을 획득하는 것을 ‘마리아주(Mariage)’라고 합니다.
99

④ 빈야드(Vineyard): 특정한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가 95% 이상 들어 있다면 그 포도밭의 이름, 즉 빈야드를 구체적으로 표시해놓는다.

⑤ 와인 양조 연도: 포도가 수확된 해의 연도를 표시하며, 최소한 95%의 와인이 그 해 수확된 포도로 만들어져야 하며 보통 빈야드와 함께 표시된다.

⑥ 알코올: 알코올의 비율

⑦ 기타 표시

bottled by: 와인을 병에 담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쓴다.

produced by 혹은 made by: 와이너리가 75%의 와인을 해당 주소에서 숙성시켰다는 뜻

Blended by: 와이너리가 해당 주소에서 그 와인을 다른 와인들과 섞었다는 뜻

Cellared by, Vinted by, Prepared by: 와이너리가 와인을 지하 저장실에서 처리했다는 뜻

그 다음으로 색깔에 따라 분류하면 Red wine, White Wine, Rose Wine, Yellow Wine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맛에 따라 분류하자면 첨가로 인한 감미가 없는 와인, 식욕을 돋우는 Dry Wine, 그리고 식사하면서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Table Wine, 주로 소회축진에 적합한, 디저트 느낌의 Sweet Wine으로 구분합니다.

와인에 대한 모든 것, 라벨

와인의 라벨에는 와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① 이름: 와이너리의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을 나타낸다.

② 와인 품종: 최소 75% 단일 품종의 포도가 들어가야 표시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 섞여 있을 경우 블렌딩 와인으로 분류, 따로 라벨에 표시해둔다.

③ 생산지: 와인 생산지를 나타내는 말로 예를 들어 ‘브루고뉴’라고 적혀 있다면 ‘브루고뉴’ 전역에서 생산된 와인을 지칭하고, 더 특정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를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표시한다.

행복한 식사의 완성, 마리아주(Mari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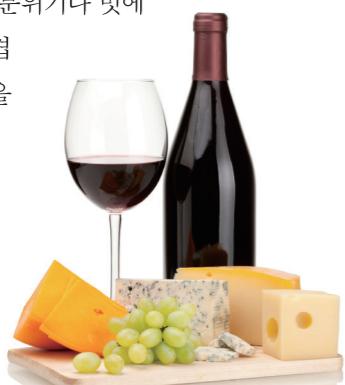
음식을 마주할 때 알맞은 식재료를 선택하고 제대로 조리하여 최고의 맛을 찾아내는 것은 미식가에게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덧붙여 어울리는 술과 음료를 곁들인다면 행복한 식사시간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음식과 조화를 맞추어 최상의 맛을 획득하는 것을 ‘마리아주(Mariage)’라고 합니다. 마리아주는 결혼이란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로, 결혼처럼 서로에게 스며들며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음식 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와인과 치즈, 최상의 궁합일까?

일반적으로 와인하면 안주로 치즈를 떠올리지만 치즈는 와인과 생각보다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즈는 텍스처가 다양하고 아주 느끼하고 크리미한 맛부터 쭉쫙하거나 시큼한 맛이 나는 것까지, 그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어울리는 종류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즈의 맛, 또는 와인의 맛 둘 다 해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드와인을 치즈와 매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치즈로 인해 탄닌 성분이 더 튀어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밀한 와인의 맛이 치즈의 강한 맛에 가려질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만 맛이 강하지 않은 치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치즈와 함께 즐기고 싶다면 와인도 탄닌이 너무 강하지 않은 부드러운 와인을 권합니다.

화이트와인은 치즈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와인의 산도가 적절한 타격감을 주고, 와인의 과일향이 치즈의 향과 잘 어울립니다. 시원한 와인과 치즈의 텍스처는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와인을 즐기려면 와인과 안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먼저 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류에는 레드 와인을 곁들이고, 생선이나 어패류를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을 선택하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교집합이 많답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에는 레드 와인이 아닌 화이트 와인을, 생선이나 훈제 연어에는 레드 와인 중 피노누아 같은 레드 와인의 여왕을 곁들여보세요. 꼭 분위기나 멋에 치우치지 마시고 야외에서 삼겹살, 소시지 등을 먹을 때 와인을 함께 즐겨도 홀륭합니다.❶



요리명인이 추천하는 가벼운 와인 안주

양송이 버섯 초리조



재료: 올리브유, 마늘, 양파, 버섯, 다진 돼지고기, 파프리카 가루, 후추, 맛소금, 베이컨, 고추가루

- 1 웍에 올리브유를 가열한 뒤 양송이 버섯을 볶아둡니다.
- 2 마늘, 양파를 충분히 볶아준 뒤 다진 돼지고기와 베이컨을 넣고 한참 익혀줍니다.
- 3 파프리카 가루와 고춧가루, 후추, 맛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 4 처음 볶아두었던 버섯에 올려 곁들이면 완성!

초리조는 돼지고기에 파프리카 가루, 소금, 마늘 등의 양념을 섞은 뒤 건조시킨 스페인 햄인데, 버섯과 초리조를 함께 구워드시면 간단한 와인 안주로 좋습니다.



송충현 명인

- 요리 경력 41년차, 대한민국 마스터명인(서양조리)
- 국제 요리대회 다수 수상
-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푸드코드네이터협회 운영위원장
- 베트남 송곡대학교 자문위원
- 송쉐프 요리연구소 소장

Zoom -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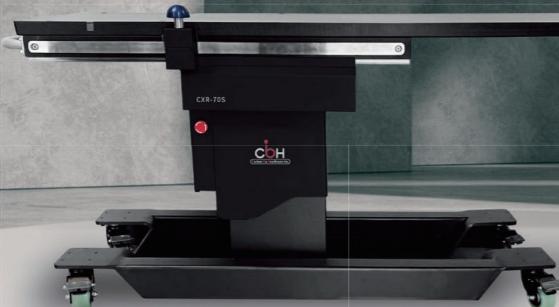
무면허 의료행위 균절(1)_‘꼬리가 짧아도 잡힌다’

이형섭



(주)씨비에이치

각종 정부 과제 수행 및 한국 내 지자체, 대학병원, 유수의 기업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검증된 기업, 신뢰성 있는 제품 개발 업체입니다.



제품 특장점

(주)CBH의 C-Arm용 카본 테이블

방사선 투과율 감소

탄소재질의 상판은 방사선 투과율이 높아 C-arm의 사용빈도를 감소시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피폭량을 감소시킨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우수한 가격 경쟁력

동일 재질의 타사 장비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제품을 저렴하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합리적인 공급가로 협의 가능!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다른 장비와 결합하여 시장 수요에 따른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제품의 물질적 성질이 불가피한 장비(X-Ray, CT 등의 투과장비)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번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요구와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패키지를 생성하고 기업의 제휴로 네트워크 사업이 수행 가능합니다.

방사선 영상 촬영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용 테이블 필요성 증대

- 최근 간단한 시술 및 수술 중에도 담당 의사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사용되는 저선량 모바일 영상 진단기기 제품이 주력을 이루기 시작함
- 수술 및 시술중에 영상 촬영을 하면서 환자 및 의료진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저선량의 방사선량으로 질이 높은 영상 확보를 위한 방사선 영상기기에 따른 높은 투과도와 의료적 사용성을 겸비한 테이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수술 중 저체온증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3배로 높으며, 출혈 확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수술대에 영상 투과가 되면서 온열 기능이 적용된 테이블이 절실히 필요함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수술하는 모습

(주)CBH C-Arm용 카본 테이블 국내·외 학회 및 전시회 활동



2022 Kimes 전시회



2022 Arab health

(주)CBH C-Arm용 카본 테이블 상세 스펙

Carbon Table 제품 상세 스펙

Specification	CXR-701	CXR-702	CXR-70F	CXR-70S
Size	613 X 2,335mm	613 X 2,335mm	613 X 2,190mm	613 X 2,210mm
Maximum height	1,208mm	1,235mm	1,172mm	1,100mm
Minimum height	808mm	835mm	722mm	800mm
Table weight	302kg	320kg	265kg	340kg
Patient Weight capacity	230kg	230kg	230kg	230kg
Cotrol switch	Hand	Hand or Foot	Hand + Foot	Auto-lock Hand + Foot
Function 1 (up-down)	400mm	400mm	450mm	300mm
Function 2 (Slide)	-	300mm	300mm	-
Function 3 (Trendelenburg tilt)	-	-	±14°	=
Function 4 (Lateral tilt)	-	-	±17°	-
Function 5 (Float)	-	-	-	X: 600mm Y: 250mm



UP-DOWN 300~450mm HEIGHT RANGE

적용 모델: CXR-701, 702, 70F, 70S

TRAVEL(SLIDE) 300mm LONGITUDINAL

적용 모델: CXR-702, 70F

TRENDELENBURG TILT ±14°

적용 모델: CXR-70F

LATERAL TILT ±17°

적용 모델: CXR-70F

FLOAT

X: 600mm / Y: 250mm

*Special Function for Cxr-70S Only

적용 모델: CXR-70S

제19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공고

『제19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을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공지사항

제19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공지드리니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후 코로나 확산 증가 또는 정부 방역지침 강화 시에는 시험 시행 연기 예정
2. 시험 응시 제한 코로나 19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3. 당일 시험장 준수사항 ①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②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 벗는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 환자와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시험안내

1. 일정 및 장소

회차	지역	시험일	시험장소
1회	수도권(성남)	7월 24일(일)	신구대학교 동관
2회	호남권(광주)	8월 28일(일)	동강대학교 전산교육관
3회	영남권(대구)	9월 25일(일)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4회	중부권(대전)	10월 23일(일)	건양대학교 죽현정보관
5회	수도권(성남)	11월 13일(일)	신구대학교 동관

5. 세부 일정

회차	지역	시험일	응시원서 접수 기간	수험번호 공지	합격자 발표
1회	수도권	7월 24일(일)	6월 13일(월)~6월 24일(금)	7월 4일(월)	7월 29일(금)
2회	호남권	8월 28일(일)	7월 18일(월)~7월 29일(금)	8월 8일(월)	9월 2일(금)
3회	영남권	9월 25일(일)	8월 16일(화)~8월 29일(월)	9월 6일(화)	9월 30일(금)
4회	중부권	10월 23일(일)	9월 13일(화)~9월 26일(월)	10월 4일(화)	10월 28일(금)
5회	수도권	11월 13일(일)	10월 4일(화)~10월 17일(월)	10월 25일(화)	11월 18일(금)

응시분야

분야

(1)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6)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유방)	(10) 투시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심장)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심장)	(15)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방사선안전관리사
(2)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7)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복부)	(11)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의료영상정보관리사	(16) 방사선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의료기기정도관리사
(3) 유방 전문방사선사	(8)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혈관)	(12) 치료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방사선치료 방사선사	(17) 방사선 의학물리사
(4)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복부)	(9)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근골격)	(13) 혈관증재 전문방사선사(일반)	
(5)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 변경 전: 임상초음파사(산부인과)	(14)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15)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 변경 전: 방사선안전관리사	

시험시간

시간	내용	비고
1교시(10:00~11:30)	권역별 온라인 시험장 운영으로 회차별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시간표 및 세부사항 공지	1) 문항수: 90문항 90분 시험
2교시(12:30~14:00)	회차당 1분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2) 시험방식: 온라인 (CBT)
3교시(15:00~16:30)	(다중분야 응시 불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방법: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작성 후 접수
※ 응시원서에 들어갈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 협회 웹사이트 [My page] → [개인정보조회수정] → [일반정보 수정하기] → [회원사진]
- 사진 파일은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또는 가로 140픽셀, 세로 180픽셀
- 사진 용량은 100Kbyte 까지만 허용합니다.
- jpg 파일 형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법을 참조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접수기간 내에 응시 수료료가 미납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진행은 전산화하여 운영되므로 진행에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등록 바랍니다.
- 과년도회비 미납자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납된 회비는 사전에 소속 시도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작업은 접수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응시수료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는 협회 사무국(02-6956-057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응시수수료: 80,000원
- 납부방법: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결제

3. 응시원서 접수 확인

- 접수 확인은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가능합니다.

4. 수험번호 공지 및 수험표 출력

-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 공지날짜 이후 수험표 개별 출력하여 지참

응시자격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인 자

2) 전문방사선사 양성을 목적으로 협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문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방사선사 관련 외국의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합격자 결정 및 발표

1.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2.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본인이 확인합니다.



방사선사협회, 초음파촬영한 간호사들 경찰에 고발

간호사들의 초음파 촬영, 의료기사법 위반혐의로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초음파 촬영 행위에 대한
계속적인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 자행되어왔던 간호사들의 초음파 촬영에 대해 해당 간호사들을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5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는 법무법인 AK(변호사 안종오, 양기오, 정다인, 하동균, 이승준, 최지훈)와 법무법인 일현(변호사 김옥수, 강백준, 김종범)을 대리인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고」 제30조(벌칙) 본문에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히고,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선사협회에 따르면,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7조 의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초음파 촬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1995년, 2014년, 2018년: 초음파 촬영은 의사 및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경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방사선사협회는 고발장에 **대법원 판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를 들어 의료기사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간호사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두 직종의 **국가 면허시험 과목 비교**를 통해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당위성을 밝혔다. 그리고 2018년 상복부초음파를 시작으로 모든 **초음파검사 요양급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명시하며, 초음파검사 주체는 의사와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의 고유업무영역임을 적시하며, 고시내용 어디에도 간호사의 요양급여 청구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초음파검사 영역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 및 초음파 전문가 육성체계** 등을 명시하며, 간호사들의 겸증되지 않은 면허로 초음파 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붕괴와 의료관련 법규의 혼선 및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더불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의료기사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해석할 경우 의료기사들의 면허제도가 형해화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직업의 자유' 및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는 헌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추후 수사 진행과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타병원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초음파 촬영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하였다.

Quiz 이벤트

방사협보 제390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7월 6일 ~ 8월 3일



1등 에어팟 프로 (2명)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퀴즈이벤트는 방사선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하며, 8월 17일(수)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iz 1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 내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RTA News 참조)

Quiz 2 2022년 제19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은 ()시행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Together 참조)

Quiz 3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의 천정을 보면 일정한 격자 안에 연꽃 봉우리를 조각했고 좌우로 용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를, 다른 하나는 ()를 물고 있다. (Sketch 참조)

방사협보 제389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깜짝스럽게 서울에서 온 전화에 미심쩍어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방사협보 이벤트 1등에 당첨되었다는 협회측의 안내에 깔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이벤트에 참가한 것 뿐인데, 1등 당첨이라니!!!
그 날 하루내내 기분이 업되어서 근무도 잘했어요. 은근히 와이프에게도 자랑거리가 생겨서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아이폰 유저는 아니지만, 잘 사용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정윤* 회원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이런 행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일 열심히 하자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치선을 대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모두무두 힐드실텐데 방사선사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_김형* 회원



당신이 근무하는 보건의료현장의 인권은 안전한가요?

현재 보건의료현장의 현실은?

보건의료노동자 70% “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간호사 10명 중 7명 “최근 1년간 고성·욕설·협박 등 폭언 피해 경험”

언어적·시각적 성폭력 경험 11%, 최근 1년 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경험 5.1%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3년이지만 10명 중 6명 “환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 줄지 않았다”



[2021 정기 실태조사 보도자료] 코로나19 시대-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실태(2021.8.12)

아직도 보건의료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2021.8월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시대-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실태

인권침해(폭언·폭행·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태움)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인권침해 상담센터로 연락주세요!

보건의료 인권침해 상담센터에서는
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자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신청대상 보건의료인력(20종)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전화상담 ☎ 033-736-4855 ~ 4860

방문상담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6층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정책센터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인권침해 상담센터(24시간 접수)**

* 보건의료인력 20종: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